

전남

‘유기 새우’ 연중 생산 길 열렸다

지하수 열 활용... 생산성 50배 높고 연료비 80% 절감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양식기술 개발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지하수 열을 활용해 새우를 연중 30~50배 생산할 수 있는 양식기술이 개발됐다.

국립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소장 이필용)는 최근 연중 새우양식이 가능한 ‘친환경 고(高)생산성 유기 새우 양식법’ 개발에 성공했다.

본대성 기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새우 양식은 지금까지 5월에 새우종묘를 입식해서 10월에 연간 1회 수확하는 양식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새로 개발된 양식기술은 배출수가 전혀 없는 바이러스 전염이 차단된 방역시설에서 지하수 열을 이용해 연료비를 80% 절감시킬 수 있는데다 계절과 기구에 관계없이 연중 양식이 가능하다.

이런 개발된 양식기술은 시설이 단순해 비용이 저렴함에도 사육밀도가 높으며 암모니아 제거가 신속해 안정적이다. 또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질소 노폐물은 새우먹이로 재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 새우를 기존방식보다 30~50배 높게 생산할 수 있는 반면 사료는 40~50% 절감할 수 있어 새우 면적당 30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양식기술이다.

이처럼 겨울철에도 신재생 에너지인 지하수 열을 이용, 가온(加溫)하는 ‘저탄소 녹색양식기술’로 장소나 기구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양식할 수 있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센터는 연중 양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양식 어업인들에게 기술 보급을 위한 창업(기술이전) 사례 발표와 함께 상업형 규모의 양식시설에

서 시범 생산된 유기새우를 직접 수확하는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시키고 있다.

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 유기새우 양식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 종묘 상시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료비 절약형 가온방식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신안 등 82개소 415.4ha(전국 면적의 41%)에서 새우를 양식, 연간 750여 t을 생산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슬로시티’ 증도 육지 됐다

길이 1.9km ‘증도대교’ 오늘 개통 광주·목포~증도간 버스운행 시작

‘슬로시티’로 지정된 신안군 증도가 육지와 연결돼 배대신 차량으로 오갈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은 30일 주민 숙원사업인 지도와 증도를 잇는 ‘증도대교’(사진) 개통식을 지역주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갖는다.

임시 개통하는 증도대교는 총 길이 1.9km(교량 900m), 너비 14m의 왕복 2차선으로, 주 교량은 3경간 중로 아치교이며 총사업비는 751억원이 투입됐다.

증도대교는 지난 2000년 10월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임시 개통까지 10년이 걸렸다.

군은 증도대교를 기념해 관광객들이 다도해를 바라볼 수 있는 한옥정자 등 함터공간과 상징조형물을 마련했다.

대교 임시개통 기간 동안은 차량만 다닐 수 있고, 오는 7월 준공 이후부터 차도와 인도가 완전 개통된다.

군은 대교 개통에 앞서 제1권역(지도, 증도, 임자) 공영버스 협의 회를 개최, 지도~증도간 버스노

선 신설과 양 지역간 간선도로 운행에 버스 2대를 신규 투입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군은 금호고속 증정연장(지도읍 지신개 → 증도 열도리조트) 운행을 위해 (주)금호고속 측과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31일부터 광주~증도(1일 4회), 목포~증도(1일 4회)를 운행하게 돼 섬지역 교통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증도대교 개통에 따라 지도, 증도, 임자를 중심으로 북부권 해양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민기자 wncho@

‘장성 나노바이오센터’ 오늘 개원

녹색성장과 친환경 신도시 건설을 이끌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센터’(사진)가 문을 연다. 장성군은 30일 오전 10시 남면 삼태리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이철 군수 등 기관장과 주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는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돼 부지 1만6천530㎡, 연건평 5천542㎡ 규모로 완공됐으며 센터 내에는 창업보육실과 세포배양실, 분석연구실 등이 들어섰다.

초임계유체 추출장치 등 45종 84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내 친환경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나노 관련기업, 회원사 등의 산업을 클러스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나노 가공과 응용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입주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R&D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도 모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선 생체재료 생산업체인 청화메디파워(주)를 비롯해 (주)누리엘앤에스, 거동건설 친환경소재연구소, (주)HS그린 등 4개 기업과 입주 협약식도 가질 예정이다.

정순주 전남도 전락산업과장은 “나노센터는 앞으로 나노융합 의료부품 소재 응용산업을 육성하게 된다”며 “연내에 나노기술산단 조성이 본격화되면 친환경 나노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해수욕장 쓰레기 눈살 최근 신안군 비금면 명사리해수욕장 백사장으로 해산쓰레기가 밀려들어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곳에는 3MW규모의 풍력발전기 3기가 설치돼 있다.

최근 신안군 비금면 명사리해수욕장 백사장으로 해산쓰레기가 밀려들어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곳에는 3MW규모의 풍력발전기 3기가 설치돼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민기자 wncho@

목포~흑산 초쾌속선

홍도까지 연장 운항

목포~신안 흑산도를 오가는 초쾌속선이 홍도까지 연장 운항한다.

목포 지방 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주민 편의를 위해 목포~흑산 간을 매일 오후 4시 운항하는 초쾌속선이 다음달 1일부터 홍도까지 연장 운항한다”고 29일 밝혔다.

초쾌속선은 지난해 3월부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투입됐으며, 홍도까지 연장 운항하면 관광객 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열 청장은 “쾌속선이 홍도까지 연장 운항하면 홍도가 ‘1일 생활권’으로 접어들고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섬 지역에서도 운항시간과 기항지 조정 등 이용자 중심으로 해상교통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상공인중개사' (Hyo Sang Gong In Chung Gae Sa) with contact info T.062-376-4056 and H.010-3126-1515.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 In Dong Sam Il Bu Dong San) with contact info (FAX)223-1772 and phone 011-602-2532.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양광발전소부지구함' (Dae Yang Kwang Jeon So Bu Ji Gu Ham) and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Gwang Ju Jeon Nam Gwon Jung Hyung Ma Teo Gu Ham).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Joo Gu Min Beom Bul Kyung Mae) with contact info 0621364-8700 and 010-4608-3700.